YouVersion 묵상자료

***제목** – 배우자 용서하기

***소개** –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인 한 남자와 죄인인 한 여자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 서로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부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글은 LA 승리장로교회 James Kim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발췌, 편집했습니다.

* 이 자료를 제공해주신 제임스 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LA 승리장로교회 홈페이지 www.vpcl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간 - 3일**

***묵상자료 제공** – James Kim 목사, LA 승리장로교회 담임

***홈페이지 주소 -** www.vpcla.com

용서

제 1일차

에베소서 4:32

“용서가 잘 안됩니다. 내게 잘못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참습니다. 성경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전 13:4)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또 입힙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 구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나에게 잘못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싫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합니다. 아니 부부는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각자의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동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죄를 범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그렇게 무수한 잘못과 죄를 범한 후에도 서로를 잘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만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bitterness)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2일차

마태복음 6:14-15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한 잘못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서로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입힌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므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마다 판단하고(마음으로라도) 비판하며 심지어 정죄까지 하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은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처와 쓰라림 속에서 자기 배우자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지적과 비판과 정죄를 배우자에게서 받는 상배 배우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 등이 계속 쌓이고 쌓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를 향해 폭파할 것이고 그들의 부부 관계는 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3일차

마가복음 8:34, 누가복음 11:4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5). 부부는 서로에게 잘못 했을 때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미안하다(I am sorry)'라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I am wrong)'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되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이기적이라 내 잘못보다 상대의 잘못이 더 크고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상대방을 용서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기를 더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의 죄악 된 이기적인 본능과 싸워 이겨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하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값을 치뤄야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막8:34). 그러나 이렇게 큰 값을 치루어 내 배우자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수확은 아름답습니다. 내 배우자가 큰 값을 치루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상대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합니다(엡4:32).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수히 죄를 범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을 믿으며 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눅11:4).